

남도 명품길 '해남 달마고도' 6월 행사 풍성

1일 산사음악회·22일 온종일 걷기 등 '달마고도 데이' 개최 미항사 주지스님 '님의 침묵' 해설 등 관광객들에 힐링 선사

"6월 색다른 달마고도의 매력에 빠져보세요."

남도 명품길 해남 달마고도에서 '6월의 달마고도 이야기'를 주제로 걷기 행사가 열린다.

6월 1일과 22일, 두 차례에 걸쳐 달마산 미항사 일원에서 관광객과 명사들이 함께 걷는 달마고도 데이(day) 행사를 갖는다. 달마고도 데이는 계절에 따라 바뀌는 달마고도의 색다른 매력을 알리고, 걷기 여행객에게 추억을 선사하기 위해 매달 날짜를 지정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6월 1일은 '달마고도 느릿느릿 걷기와 산사음악회'를 주요 주제로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달마고도 1코스(미항사-큰바람재-미항사) 2.71km를 온몸으로 느끼며 느릿느릿 걸어보는 시간을 갖는다.

산행이 끝난 후 오후 7시 30분부터 9시

까지의 미항사 주지 금강스님이 들려주는 만해 한용운의 '님의 침묵' 해설과 바로크 음악이 어우러지는 연주회 '바로크스피레이션'이 열린다.

17-18세기 바로크 음악의 진수를 경험할 수 있다.

6월 22일에는 달마고도 제대로 알기 일환으로 오전 9시부터 달마고도 전 구간 17.74km를 온종일 걷는다.

전 구간 순례는 달마고도를 온전히 느껴보고 싶은 여행객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군에서는 트레킹 가이드를 배치해 여행객들의 걸기를 안내할 예정이다.

6월 달마고도 이야기 프로그램은 1차, 2차 각 100명씩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신청접수와 문의는 해남군 관광과 (061-530-5157~5159)로 하면 된다.



6월 1일과 22일, 달마산 미항사 일원에서 관광객과 명사들이 함께 걷는 달마고도 데이(day) 행사가 열린다. 남도 명품길로 이름이 알려진 해남 달마고도. <해남군 제공>

해남군 관계자는 "한번 오면 또 가고싶다"며 "일상에 지친 이들이 달마고도에서 활력을 받고 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며 "일상에 지친 이들이 달마고도에서 활력을 받고 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자 노트

의전이 뒤길래...



정은 조 전남주재총괄본부장

완도교육지원청 교육장의 무리한 의전 요구가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 완도에서는 지난 3월 부임한 완도교육지원청 김모 교육장의 무리한 의전 요구로 뒷말이 무성하다. 행사를 진행한 군청 관계자들 입에서는 관행을 깬 무리한 의전 요구로 피곤하다는 말까지 들린다.

김 교육장은 취임직후부터 완도 관내 주요 기관장들이 참석하는 행사 때마다 자신을 다른 기관장보다 앞자리에 배치해달라는 요구를 해 물의를 빚고 있다. 완도군이 주관한 행사에서만 지금까지 4~5차례 의전을 놓고 교육청과 군청 관계자가 얼굴을 붉혔다.

지난달 완도초등학교에서 열린 완도 실내수영장 준공식 자리가 대표적이다. 완도군청 관계자에 따르면 준공식을 앞두고 완도교육지원청이 교육장의 자리를 군수와 군의회 의장에 이어 세번째 자리로 배치해 줄 것을 요구해 군청 의전 관계자를 곤혹스럽게 만들었다.

90억원(국비 30억원, 군비 40억원, 도교육청 예산 20억원)을 들여 지은 실내수영장 준공식 행사 주관은 군청이었다. 군청은 의전 순서에 따라 군수, 군의회 의장, 경찰서장, 해경서장, 교육장 순으로 배치했는데 교육청측에서 교육장을 세번째로 배치해 줄 것을 요구해 황당했다는 것이다. 이날 준공식에는 전남 22개 시·군 교육장을 관리 감독하는 전남도교육감도 참석했다.

이에 끝머리를 얹은 군청측은 앞뒤

로 배치하던 기관 단체장의 좌석을 좌우로 나눠 배치한 후 준공식을 치렀다. 한편에 기존 순서대로 군수, 군의회 의장, 경찰서장, 해경서장 등을 배치하고 맞은 편에 전남도교육감과 완도교육장을 배치하는 방식으로 치른 것이다.

행사를 치른후 군청 안팎에서는 교육장의 무리한 의전 요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군청의 한 관계자는 "한 두번이 아니라 4~5차례는 된 것으로 기억한다"며 "의전이 뒤길래 그리 신경을 쓰는지 피곤할 지경이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기관장들은 대체로 의전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 점에서 의전을 중시하는 것을 무조건 비판할 수는 없다. 하지만 한 두번도 아니고 의전 순서까지 바뀌며 자신을 앞에 배치해 달라고 하는 것은 도를 넘은 행위다.

지난 달 완도에선 동급생에게 이른바 '기질 놀이' 등 가혹행위를 한 고교생 3명이 퇴학 처분을 받는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됐다. 고교생들의 집단 학교폭력은 교실은 물론 기숙사에서 버젓이 발생했는데도 학교와 교육청측은 사태 파악조차 제대로 하지 못해 학부모들로부터 비난을 샀다.

교육수장이 의전만 챙기고 생활지도와 교육은 뒷전이려면 학부모들은 뭐라고 할까. 교육장은 스스로에게 묻고 이에 답해야 한다.

jeonjung@kwangju.co.kr



해남군, 파워블로거 초청 팸투어 해남군은 지난 24~25일 전국 파워블로거 10명을 초청해 1박 2일동안 팸투어를 실시했다. 파워블로거들은 고산 운선도 유적지와 두륜산, 땅끝관광지, 도솔암 등 해남의 주요 명소를 답사하고 해남의 볼거리와 먹거리를 즐겼다. <해남군 제공>

해남군, 50세 이상 퇴직경력자 서비스 일자리사업 실시

해남군이 만50세 이상 퇴직 경력자를 대상으로 신중년 경력활용 서비스 일자리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사업은 사회적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50~60세대 신중년을 대상으로 지역서비스 일자리를 창출해 신중년들의 지역사회에 대한 역할을 강화하고 소득창출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모집인원은 2개 사업 7명이며, 사업기간은 6월부터 연말까지 7개월간 관내 주요 관광지 및 각종행사에서 관광 스토리텔링 구성과 사진단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2017년 이전 출생자(만50세 이상)이며, 현재 고용보험 미가입자인 군민으로서

해설 또는 사진관련 경력자만 신청이 가능하다.

사업에 선정된 참여자는 관내 관광지에서 문화관광해설사와 함께 관광객 안내 및 관광사진 D/B구축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모집 기간은 31일까지이며 자세한 내용은 인구정책과 일자리창출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

완도군 보건의료원 피부과 전문의 진료

완도군 보건의료원이 피부과 전문의의 진료를 시작했다. <사진>

29일 완도군에 따르면 다양한 피부 질환으로 불편을 겪는 군민에게 보건의료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원에 피부과 전문의를 배치, 본격적인 진료를 하고 있다.

주민들은 그동안 피부과 전문의가 없어 인근 시·군으로 원정 진료를 가야 하는 등 불편을 겪었다.

진료 분야는 아토피 피부염, 알레르기성 피부염, 건선, 진균질환(무좀) 등이다.

완도군 보건의료원 관계자는 "피부 레이저 및 냉동치료를 활용, 피부 질환 환자를 치료하고 있어 내원 환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주재총괄본부장

완도군, '청년희망 디딤돌 통장' 신청자 접수

완도군이 전남도와 함께 청년 안정적인 미래 준비와 자립을 지원하고자 '청년 희망 디딤돌 통장' 사업을 추진한다.

청년이 3년 동안 매월 10만원을 적립하면 만기 시 두 배의 금액과 이자를 함께 지급한다. 구직·창업·결혼·주거 등 자립 기반 조

성과 안정적인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신청 자격은 만 18세부터 만 39세 이하의 완도군 거주자다.

신청 기간은 다음달 7일까지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주재총괄본부장

진도군, 신소득작목 발굴 '농가 맞춤형 시범사업' 공모

진도군은 기후, 소비·식생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신소득작목 발굴 농가 맞춤형 시범사업을 공모한다.

29일 진도군에 따르면 군은 지역 농업인의 구성·계획을 실질적으로 반영하고 농가의 자율성을 높이는 등 특정품목에 대해서만 사업을 선정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소득작목의 다양화를 유도하

기 위해 공모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공모사업은 개소당 5000만원 이내, 10개소로 진도군 농업기술센터에서 다음달 12일까지 사업 신청서를 접수한다.

대상자 선정은 오는 7월 중 사업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선정하고, 2020년도 본예산에 4억원을 반영할 계획이다. /진도=박현영 기자 hypark@

FACE 메이크업만 하는 시대는 끝!
이제는 **BODY** 메이크 **UP!**

하트러져 있는 살들을 제자리로 **정돈** 시켜 완벽한 몸매로!

가능성 속옷 장수기업
기능성 속옷의 명가

아모리온	아모리온 롱바디	아실리 바디슈트 슈에드	비비드아모르
브라+슈트+거들 4개국 특허 3단 일체형 슈트	브라+슈트+거들+레깅스 4개국 특허 4단 일체형 슈트	블랙은사 바디슈트의 은사 레이스 품평회 1등	런닝 + 팬츠 2단 일체형 남성용 슈트

한국, 미국, 일본, 중국 특허
부위별로 특별하게!
생리적인 불편을 해소!

편안한 착용감
탄성GOOD! 흡습성 GOOD!
일본 도레이社 LYCRA
별단면육각형 사용

실크프로테인아미노산기공
원적외선 기공

1588-2219 본사 광주광역시 북구 경일로 235 V&G빌딩
서울사옥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28길 5
추복빌딩(도곡동 518-9)

www.aroma-life.co.kr

FACE 메이크업만 하는 시대는 끝!
이제는 **BODY** 메이크 **UP!**

하트러져 있는 살들을 제자리로 **정돈** 시켜 완벽한 몸매로!

가능성 속옷 장수기업
기능성 속옷의 명가

아모리온	아모리온 롱바디	아실리 바디슈트 슈에드	비비드아모르
브라+슈트+거들 4개국 특허 3단 일체형 슈트	브라+슈트+거들+레깅스 4개국 특허 4단 일체형 슈트	블랙은사 바디슈트의 은사 레이스 품평회 1등	런닝 + 팬츠 2단 일체형 남성용 슈트

한국, 미국, 일본, 중국 특허
부위별로 특별하게!
생리적인 불편을 해소!

편안한 착용감
탄성GOOD! 흡습성 GOOD!
일본 도레이社 LYCRA
별단면육각형 사용

실크프로테인아미노산기공
원적외선 기공

1588-2219 본사 광주광역시 북구 경일로 235 V&G빌딩
서울사옥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28길 5
추복빌딩(도곡동 518-9)